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 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김 완 중**

I. 서론

ASEAN의 역내경제협력 추진으로 역내국가간 교역확대 유인이 높아졌으며, ASEAN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제공하는 여러 이점을 누리기 위한 ASEAN 국가에 대한 역내외 FDI 유인도 제고되었다. 그에 따라 그동안 ASEAN 역내경제협력 정책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ASEAN의 역내경제협력에 따른 역내무역확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역내경제협력에 따른 ASEAN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은 단순한 역내무역비중 변화 분석에서부터,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등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프랭켈(Frankel 1997)과 클라레테, 에드몬즈, 월락(Clarete, Edmonds and Wallack 2002) 등 학자들의 경우 고전적 중력모형¹⁾을 통해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프랭켈은 1965~1992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ASEAN의 역내 국가간 무역이 비회원국간 교역에 비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wk7862@dau.ac.kr.

1) 본 논문에서는 mutilateral resistance항에 대한 고려가 없는 모형을 고전적 중력모형이라 칭하기로 함. Mutilateral resistance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함.

6.4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엘리어트와 이케모토(Elliott and Ikemoto 2003)는 1983~1995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ASEAN의 역내 국가간 교역이 비회원국가들에 비해 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쏘튼과 고글리오(Thornton and Goglio 2002)는 1980~1996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역내국가간 교역이 비회원국들에 비해 0.81배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으며, 클라레테, 에드몬즈, 월락(Clarete, Edmonds and Wallack 2002)의 경우 1980~200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역내국가간 교역이 역외국가와의 교역에 0.94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종화와 박인원(Lee and Park 2003)의 경우에도 1955~1997년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역내교역 증가가 역외국가와의 교역에 비해 0.98배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고전적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ASEAN 더미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분석대상 기간이 공동 유효특혜관세(CEPT) 출범이전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무역자유화에 따른 역내교역 활성화 효과를 분석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CGE 모형을 이용한 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도 다수 이루어졌다. 즉 데로사(DeRosa 1995)는 AFTA로 100%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고,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ASEAN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의 역내교역이 19%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루이스와 로빈슨(Lewis and Robinson 1996)의 경우 AFTA로 100% 관세가 인하되고,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ASEAN의 역내무역이 10.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아담스와 박인원(Adams and Park 1995)의 경우 ASEAN 5가 50% 관세를 인하할 경우, 역내무역 증가율이 인도네시아 7.6%, 말레이시아 2.4%, 필리핀 7.5%, 싱가포르 4.5%, 태국 8.2%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구인 권율,정인교,박인원(2003)은 기존의 실증분석들이 AFTA 출범 이전인

1980년대나 1990년대 초반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7년을 모형분석의 기준연도로 하여 AFTA의 경제적 효과를 재추정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FTA 형성으로 1997년 기준으로 역내 회원국간 존재하는 관세가 완전철폐 될 경우, ASEAN 역내수출은 5.3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역내수출이 10.65%, 말레이시아의 경우 2.62%, 필리핀의 경우 2.60%, 싱가포르의 경우 7.17%, 태국의 경우 4.68%,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13.5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GE 모형의 경우, CEPT 발효이후 역내관세인하에 따른 실제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연구분석 기간 시점에서 추가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역내교역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분석대상 기간이나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중력모형과 CGE 모형에 기초한 기존 연구는 CEPT 등 다양한 역내경제협력의 효과로서 역내무역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분석했다고 할 수 없다. AFTA의 효과로 역내무역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EPT 전과 후에 있어 역내무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특히 CEPT 개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내무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CEPT 전후의 자료를 토대로 역내국가들간 교역이 비회원국가들과의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ASEAN의 경제협력정책 또는 AFTA의 역내교역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적인 효과분석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력모형에 기반한 기존연구의 경우 CEPT 개시 전후의 역내교역규모를 비교분석하지 않고, CEPT 전후의 통합된 자료에 ASEAN 더미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중력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력모형에 기반한 기존연구의 경우 명시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수출장벽에 있어서의 국가별 차이, 수입국가들이 수출국가들

에 대해 설치하는 수입장벽에 있어서의 국가별 차이, 그리고 그러한 수출 및 수입장벽에 있어서의 동태적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²⁾ 한편 CGE 모형의 경우 실제로 CEPT 전후로 이루어진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변화가 역내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된다면 역내무역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분석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기존연구 조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CEPT 발효 후 ASEAN 전체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 중력모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 경우에도 ASEAN 개별 국가들의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은 소수에 불과하다.³⁾ 또한 CEPT 발효 이후 ASEAN 국가들과 역외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동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AFTA 효과분석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중력모형에서 multilateral resistance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경우 앤더슨과 윈쿠프(Aderson and Wincoop 2003)가 지적했듯이 추정치가 불편성(unbiasedness)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multilateral resistance를 고려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AFTA 출범이후 ASEAN의 다양한 역내경제협력 역내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ASEAN의 역내경제협력 중 CEPT 등 역내무역활성화와 같

2) 2000년대 초반 앤더슨과 윈쿠프(Aderson and Wincoop 2003) 등은 기존 중력모형에 수출 및 수입에 있어서의 그러한 다양한 장벽을 Multilateral resistance라는 항에 반영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은 모형설명 부분에서 다시 언급됨.

3) CEPT에 따른 개별회원국 수출입에 대한 영향 분석으로는 살마와 차아(Sharma and Chua 2000)가 있으나, 분석 대상 기간이 ASEAN의 역내 관세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 1994년 이전인 1980~1995년으로 CEPT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CGE 모형을 이용한 국가별 분석이 있었으나, 그 경우 실제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닌, 향후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시 회원국 각국에 있어서의 무역효과 분석이었다.

은 특정정책의 효과만 분리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CEPT 등을 포함한 ASEAN의 다양한 경제협력노력이 역내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한다. ASEAN의 역내경제협력은 CEPT 뿐만 아니라 역내 투자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중첩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CEPT 그 자체 효과만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역내무역은 역내 비관세장벽에 있어서의 변화, 역내투자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관세장벽이나 역내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정량적으로 계량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CEPT 등 ASEAN의 다양한 경제협력정책 효과가 ASEAN 개별국가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SEAN 전체가 아닌 개별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ASEAN의 지속적인 역내경제협력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ASEAN 각국의 역내외 무역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ASEAN 역내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ASEAN 국가들의 역외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SEAN 10개 회원국 중 1993년말부터 CEPT 적용을 받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의 역내외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CEPT를 전후로 한 역내외 무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패널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의 국가별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CEPT 및 AFTA 실현(CEPT 대상 모든 품목의 역내 관세율을 2003년까지 0~5%로 달성한다는 당초 계획 달성 의미) 이후 역내국가간 교역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들의 교역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관세장벽완화 등 ASEAN의 역내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성과로서 역내무역 및 역내투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모형 및 분석 결과를 살펴본 후, IV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II. ASEAN의 역내경제협력정책과 성과

1. ASEAN의 역내경제협력정책

ASEAN의 역내경제협력강화 노력은 70~80년대부터 ASEAN공업 프로젝트(AIP), ASEAN공업보완계획(AIC), ASEAN공업합작계획(AIJV), 상표간 보완계획(BBC) 등이 있었으나, 본격적이고 가시적 성과는 1990년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ASEAN 역내경제협력정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역내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한 CEPT를 들 수 있다. ASEAN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1993년 11월부터 AFTA를 위한 CEPT가 발효되면서 ASEAN 역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수량규제 철폐 등)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1996년부터 ASEAN산업협력(AICO)라는 이름으로 제조업 부품 및 자재에 대한 역내관세가 인하되었다. 둘째, 불필요한 기술적인 무역장벽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였으며, 관세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성,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 지적소유권 보호 등 역내무역 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셋째,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투자자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1998년부터 자본 및 노동이동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A(ASEAN Investment Area)가 개시되었다.⁴⁾ 이러한 ASEAN의 노력은 역내교역 및 역내투자 활성화에 공

4)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을 외(2003)를 참조.

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역내경제통합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역내무역자유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SEAN은 2003년 AFTA 실현을 위해 1993년 기본협정인 CEPT에 합의하였다. 이후 1993년 말부터 CEPT에 따라 역내 관세가 매년 점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03년까지 분석대상 상기 5개국의 역내 평균관세율이 0-5%로 인하되었다. CEPT 규정에 따르면 관세인하 적용품목(Inclusion List)은 공산품과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조품인데, 적용품목의 수가 1993년 CEPT 발효 당시 41,147개에서 2003년 49,445개로 증가했으며, 잠정예외품목(Temporary Exclusion List)은 3,321개에서 218개로 대폭 축소되었고, 일반예외품목(General Exclusion List) 역시 523개에서 301로 대폭 축소되었다. 2003년 기준으로 적용대상품목 60%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고, 역내 거래되는 대부분 품목의 역내관세율은 0~5%였으며, 5%를 초과하는 품목은 대상품목 수의 3%대에 불과하다. 역내 평균관세율 인하 추이를 국별로 보면 태국이 1998년 10.56%에서 2003년 4.64%로 인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7.04%에서 3.71%로, 말레이시아는 3.58%에서 2.06%로, 필리핀은 7.96%에서 3.75%로 인하했다. 싱가폴은 1998년부터 이미 역내관세가 0% 였다.

또한 ASEAN은 관세이외에도 역내교역에 있어서의 비관세 장벽도 점차 철폐하고 있다.⁵⁾ 1995년 1차 조사 당시 회원국(ASEAN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에는 총 3,865개 품목에 비관세 장벽이 존재했는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가 2,8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장벽’이 981개, ‘독점적 수입

5) CEPT 5조에 따르면, CEPT 협정의 시행과 병행하여 CEPT 대상품목에 대한 모든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관세인하 종료 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여타 비관세장벽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채널'이 75개였다. 그러던 것이 2004년 8월 조사에서는 총 비관세장벽 품목이 1,859개로 절반가량 축소되었다.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는 2,809개에서 50개로 대폭 축소되었고, '기술장벽'은 981개에서 785개로, 독점적 수입채널은 75개에서 25개로 축소되었다.⁶⁾ 그러나 수입제한조치, 쿼터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추가되기도 하였다(권을 2005). 한편 1995년에는 역내무역 자유화 대상에 상품 이외에도 금융, 통신, 관광, 해운, 건설 등 서비스 분야도 포함시킴으로써 ASEAN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2. ASEAN경제통합정책의 성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역내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그 외 다양한 ASEAN의 역내시장 통합 노력, ASEAN의 소득증대 등은 역내국가간 투자 및 역외국가들의 ASEAN에 대한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다. ASEAN5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1991년 129억달러, 1992년 115억달러, 1993년 147억달러를 기록했으며, AFTA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1994년에는 180억달러까지 확대되었으며,⁷⁾ 이후 아시아외환위기 이전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가 심했던 1998년에는 ASEAN5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시 감소한 후 등락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이어졌다.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ASEAN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속도는 2002년 이후 여타 국가들(rest of the world)에 대한 외국인투자액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2005년 누적기준으로 ASEAN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약 2,500억달러인 반면, 회원국들의 역내직접

6) 2004년 조사에는 라오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국가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SEAN6의 비관세장벽 수는 보다 더 크게 축소되었을 것.

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2000, 2001. 자료

투자액은 약 260억달러로 총투자액의 10.4% 수준이었다(<표 1> 참조). 자료 제약 상 CEPT 전후 연도별 역내투자액 추이를 제시하지 못하지만,⁸⁾ 분명한 것은 누적액 기준으로 ASEAN 총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역내직접투자 비중이 ASEAN 총교역액에서 역내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20%대)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역내투자가 역내무역비중 확대에 기여한 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왜냐하면 역내투자비중 자체가 낮을뿐더러, 역내투자 기업의 교역에 있어서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에 비해 꼭 더

<표 1> ASEAN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ASEAN5
1995	4,346	5,815	1,577	11,503	2,070	25,311
1996	6,194	7,297	1,618	9,303	2,338	26,750
1997	4,678	6,323	1,261	13,533	3,882	29,677
1998	-356	2,714	1,718	7,594	7,491	19,161
1999	-2,745	3,895	1,247	16,067	6,091	24,555
2000	-4,550	3,788	2,240	16,485	3,350	21,313
2001	-3,279	554	195	15,649	3,886	17,005
2002	145	3,203	1,542	7,338	947	13,175
2003	-596	2,473	491	10,376	1,952	14,696
2004	1,895	4,624	688	14,819	1,414	23,440
2005	6,107	3,965	1,132	20,081	4,008	35,293
총FDI유입(A) (1995-2005)	11,839	44,651	13,709	142,748	37,429	250,376
역내FDI 유입(B) (1995-2005)	2,088	8,222	1,316	7,946	6,493	26,065
(B/A)*100	17.6	18.4	9.6	5.6	17.3	10.4

출처: ASEAN Investment Report 2006.

8) CEPT 전후 ASEAN 국가들의 역내투자 추이는 자료 제약 상 제시하지 못함. 본 연구에 제시된 누적 역내투자액은 ASEAN INVESTMENT REPORT 내용 인용.

높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역내투자를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역내투자를 제일 많이 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전체 역내투자액의 60.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20.5%, 인도네시아 14.4%, 태국 3.0%, 필리핀 1.7% 순이었다. 한편 1995~2005년 누적유입액기준으로 회원국 중 역내직접투자를 제일 많이 받은 국가는 말레이시아(31.5%), 싱가포르(30.5%), 태국(24.9%), 인도네시아(8.0%), 필리핀(5.1%) 순이었다(<표 2> 참조).

<표 2> ASEAN 역내투자누계액(1995-2005)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각국에 대한 역내투자	역내 투자액 중 비중
인도네시아	0.1	293.3	38.6	3,388.1	44.3	3,764.3	14.4
말레이시아	976.2	-	87.7	4,045.9	226.7	5,336.6	20.5
필리핀	13.3	96.8	0.3	105.5	223.0	438.8	1.7
싱가포르	954.1	7,622.9	1,167.2	-	5,998.9	15,743.1	60.4
태국	144.1	209.1	22.6	406.3	-	782.1	3.0
총 유입액	2,087.7	8,222.2	1,316.4	7,945.7	6,492.9	26,064.8	100.0

주: 횡축은 FDI 투자국, 종축은 FDI 투자대상국임.

출처: ASEAN Investment Report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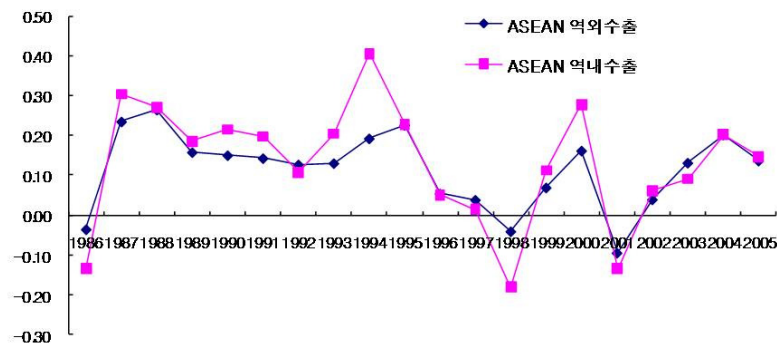
3. ASEAN경제협력정책의 성과: 역내무역 확대

CEPT를 포함한 다양한 ASEAN의 경제협력정책은 직간접적으로 ASEAN의 역내무역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즉 CEPT와 같은 조치들이 역내교역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 외 여타 ASEAN의 경제협력정책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ASEAN를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그러한 인식변화는 ASEAN 역내 생산분업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ASEAN의 역내 및 역외 수입출 장기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역내수출입과 역외수출입 증가율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CEPT가 발효된 1994년의 경우 역내수출입 증가율이 역외수출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아시아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1998년 동안 역내외 교역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특히 경제위기로 ASEAN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역내 수출입 증가율의 하락 폭이 매우 컸다. 아시아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역내수출입 증가율이 역외수출입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게 유지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역내 및 역외 수출입증가율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역내외 수출입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때, CEPT가 발효된 1994년 전후로 역내 수출입 증가율이 역외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았던 점에서 역내 관세인하 및 부분적인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 ASEAN의 역내 및 역외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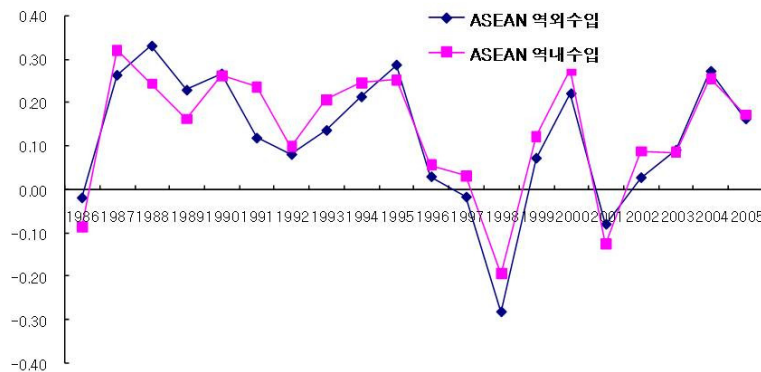


주: 증가율 계산시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은 자료 제약상 제외됨.⁹⁾

출처: Direction of Trad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FTA가 출범하면서 목표로 했던 역내평균관세율 0~5%가 도달된 2003년 이후에 있어서 역내수출입 증가율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ASEAN의 역내 및 역외 수입 증가율



주: 증가율 계산 시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입은 자료 제약상 제외됨.
출처: Direction of Trade(DOT),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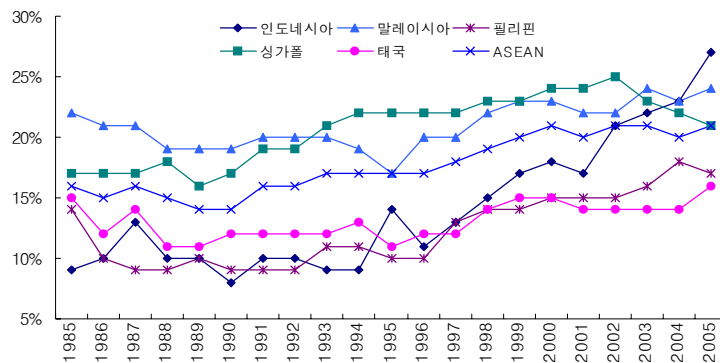
<그림 3>은 ASEAN 각국의 총 수입 중 역내수입 비중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에 따르면 ASEAN의 총 수입 중 역내수입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CEPT 발효 당시 10%대 였던 역내수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이후 20%대에 진입했다. 특히 CEPT가 발효되기 직전과 발효된 해인 1991년과 1993년에 역내수입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이후 1997년부터 2000년까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횡보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역내비중 추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9) UN, Comtrade 등 국제기관의 DB에서도 2003년부터만 자료 존재. 싱가포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양국간 통계에는 재수출(re-export)까지 포함됨.

총 수입에서 역내수입 비중은 19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 총수입액 중 역내수입 비중도 199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3년에 다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태국의 경우도 총 수입 중 역내수입 비중은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횡보에 그쳐, 태국은 2005년 기준으로 ASEAN 5개국 중 가장 낮은 역내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1993년부터 역내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도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2003년 역내교역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싱가포르 역내수입 비중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03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편 역내수입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싱가포르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대신, CEPT 발효 당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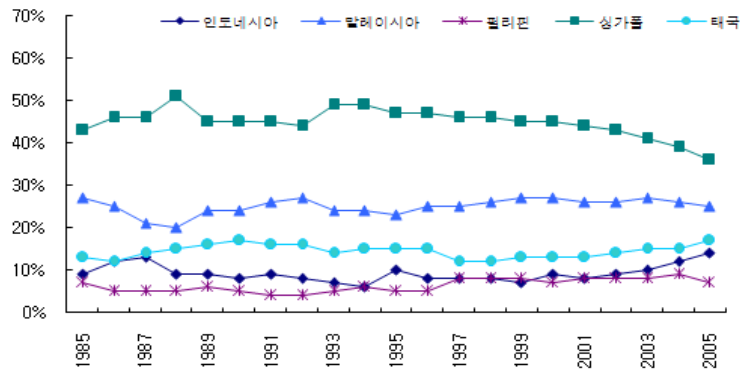
<그림 3> ASEAN 각국의 총 수입 중 역내수입 비중 추이



주: 싱가포르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자료 제약상 포함되지 않음. IMF, DOT DB을 활용할 경우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포함된 비중은 2003년부터 집계(<부표 1> 참조).

출처: DOT DB, IMF 이용 계산

<그림 4> ASEAN 역내 수입 중 국가별 비중 추이



주: 싱가포르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이 자료 제약상 포함되지 않음. IMF, DOT DB을 활용하면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이 포함된 비중은 2003년부터 집계(<부표 2> 참조).

출처: DOT DB, IMF 이용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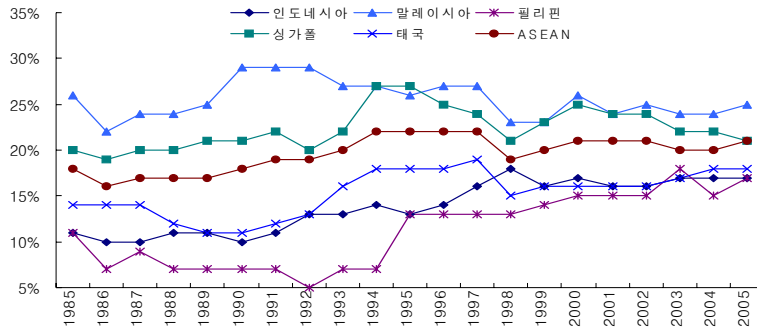
한편 <그림 5>는 ASEAN 각국의 총 수출 중 역내수출 비중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ASEAN의 총 수출액 중 역내수출 비중은 CEPT 발효를 전후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CEPT 발효 다음해인 1994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총수출 중 역내수출 비중 추이는 횡보를 보이다 아시아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에 큰 폭의 하향 조정 후 다소 회복하였으나 이후 다시 횡보를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역내수출비중은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국가간 차이가 축소되었다. ASEAN 역내 수출액에서 회원국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이후 구조상 변화는 거의 없다. 다만 ASEAN 총 역내수출에서 필리핀 비중이 1995년 이후 다소 높게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그림 6 참조). 1997~1998년 역내수출 중 필리핀의 비중 증가는 필리핀이 여타 ASEAN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시아외환위기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SEAN 각 회원국의 총 수출 중 역내수출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의 총 수출 중 역내수출비중은 199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 후 횡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내수출비중은 1987~1990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1993년부터 하락 추세 후 횡보세이다. 태국의 총 수출 중 역내수출비중은 1988~1990년 하락세, 1991년~1997년 높은 증가세라는 큰 변화를 보였으나, 1998년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하향조정 후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1990년 초반까지 총 수출액에서 역내수출액 비중이 10% 이하로 저조하였으나,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기준으로 17%에 이르렀다. 싱가포르 총 수출 중 역내수출 비중은 CEPT가 발표된 1993년과 이듬해인 1994년을 중심으로 1990년 초부터 1990년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아시아외환위기로 1998년 조정을 거쳐 회복된 후 2000년 들어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ASEAN의 역내교역비중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근거로 ASEAN의 역내경제협력정책 효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AFTA 출범이후 역내관세가 인하되었던 기간에 역내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ASEAN의 역내경제규모가 미국, EU, 중국 등 ASEAN의 주요 교역대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20%대의 역내교역 비중이 낮다고만은 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GDP에서 ASEAN5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약 3%에서 2005년 5% 수준으로 확대된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20%의 역내교역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없다. 만약 ASEAN이 CEPT 등 경제통합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ASEAN의 역내교역비중은 20%보다 훨씬 낮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역내교역비중이 답보상태를 보

<그림 5> ASEAN 각국의 총 수출 중 역내수출 비중 추이



주: 싱가포르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이 자료 제약상 포함되지 않음. IMF, DOT DB을 활용하면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이 포함된 비중은 2003년부터 집계(<부표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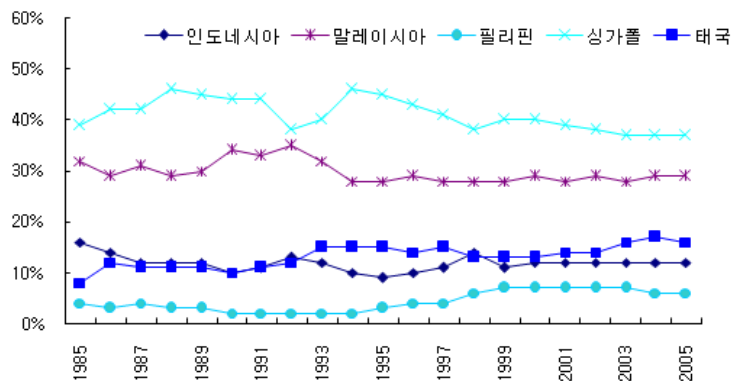
이는 것은 1993년 말부터 역내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인하속도가 둔화되어 관세인하의 추가적인 역내교역 확대효과가 점차 미미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ASEAN5의 역내관세율은 1996년 7%대에서 1998년 5%대로 인하되었고, 1999년 드디어 5% 이하인 4.77%를 기록하였다. 이후 2000년 3.87%, 2001년 3.65%, 2002년 3.25%, 2003년 2.68%로 2000년 이후 역내관세율 인하속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내관세인하와 달리 역내외 교역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 철폐는 역내 및 역외 무역활성화에는 매우 긍정적이나, 역내 교역뿐만 아니라 역외교역에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로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는 측면은 없다¹⁰⁾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외교역에 비해

10) ASEAN의 비관세장벽 완화는 역내회원국간 비관세장벽 완화노력 뿐만 아니라 WTO와 같은 다자간통상협상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ASEAN의 비관세장벽 완화가 역내 및 역외무역에 미친 효과는 비대칭적이기 보다는 대칭적일 가능성이 높다.

역내교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역내교역에만 제공되는 역내 관세철폐 및 역내비관세철폐와 같은 조치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FDI의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및 완성품의 교역증가가 ASEAN의 교역확대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¹¹⁾ ASEAN에 대한 FDI 증가 그 자체가 역내교역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ASEAN에 대한 FDI 증가는 역내 뿐만 아니라 역외교역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FDI 증가가 역내교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역내 FDI 증가의 경우나 또는 ASEAN 역내 생산분할 체제 형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역외 FDI 증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역내교역에만 적용되는 CEPT에 따른 관세인하

<그림 6> ASEAN 역내 수출 중 국가별 비중 추이



주: 싱가포르 경우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자료 제약상 포함되지 않음. IMF, DOT DB을 활용하면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포함된 비중은 2003년부터 집계(<부표 4> 참조).

출처: DOT DB, IMF 이용 계산

11)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분석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음. ASEAN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원용걸(2008)를 들 수 있음. 원용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수출증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조치가 상대적으로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에 비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 실증분석에서는 CEPT를 전후한 역내교역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본다.

III. 모형 및 분석결과

1. 모형 및 자료

ASEAN 경제협력정책의 역내교역에 대한 효과분석은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 변화 등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 평가되어야 한다. CEPT 발효 이후 ASEAN 역내교역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리, 교역국 및 상대국의 경제규모 변화 등 역내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통제 한 후 ASEAN 회원국들의 교역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력모형을 토대로 CEPT 출범 전후에 있어서의 역내외 교역 구조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앤더슨, 윈쿠프(Anderson and Wincoop 2003)가 개발한 (식 1)의 중력모형에 바탕을 둔다.

$$\ln\left(\frac{x_{tij}}{y_{ti}y_{tj}}\right) = \beta_0 + \beta_1 \ln DIST_{ij} + \beta_2 BD_{ij} + \beta_3 LNG_{ij} + \beta_4 CN_{ij} - P_{ti}^\alpha - P_{tj}^{1-\alpha} + \epsilon_{tij} \quad \text{..... (식 1)}$$

위 식에서 좌측의 종속변수는 ASEAN 각국과 교역상대국가들의 GDP곱 대비 양국간 교역액을 나타내고, 우측의 설명변수는 차례로 상수항, ASEAN 각국과 교역상대국간 거리, 접경국 여부 더미변수,

공통언어 여부(하나의 언어가 양국 모두에서 적어도 9% 이상씩 사용 여부 더미변수¹²⁾), 식민지 경험 여부 더미변수, 해당국가에 의해서 야기되는 Multilateral resistance,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야기되는 Multilateral resistance 항목을 가리킨다.

이론에 따르면 Multilateral resistance는 거리, 국경, 언어 등을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함수이다. 즉 Multilateral resistance는 수입국가들이 부과하는 수출국가에 대한 다양한 장벽과 수출국가들에 있어서의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요인에 있어서의 이질적인 국가간 차별성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Multilateral resistance 항을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인 중력모형을 따를 경우 Omitted 변수와 설명변수간 상관관계에 의한 Omitted variable bias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비선형최소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 estimation)이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추정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무역장벽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에 기초하여 계수를 추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Multilateral resistance 부분을 국가별 및 연도별 더미변수를 통해서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중력모형 이론상 GDP곱의 계수 값은 1이나, 실제 회귀분석결과 계수 추정치가 1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 GDP곱의 계수 값에 대한 이론적 제약은 두지 않도록 한다. 그 결과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식 2)와 같다.

ASEAN 각국의 수입에 있어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ASEAN 각국의 역내 및 역외 국가와의 양자간 수입통계를 이용한다. 수입장벽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ASEAN 개별 수입국에 대해 더미변수를 연도별로 추가한다.¹³⁾ 한편 이 경우 ASEAN 각국에

12) 공통언어 여부의 더미변수에서 교역상대국 인구의 9% 이상이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한 것은 100% 공통언어는 아니어도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교역에서 있어서와 같이 화교가 많은 지역의 경우를 반영하기 위함임.

13) 더미변수 수는 $39[(5(\text{국가 수}) \times 8(\text{연도 수}) - 1)]$. Dummy Trap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대한 세계 각국의 수출장벽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실증분석 모형에서 수입대상국별 더미변수는 추가하되¹⁴⁾ 연도별 수입대상국 더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세계 각국의 ASEAN 국가에 대한 수출장벽은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ASEAN의 국별 및 연도별 더미변수를 통해서 CEPT 발효 전후 역내경제협력 정책에 따른 ASEAN 국가별 수입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모형 1 참조). 즉 ASEAN 국가의 수입변화 추이를 통해 회원국별 무역장벽 완화속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ASEAN 국가들의 역내 및 역외 각 수입대상국들에 대한 상대적 수입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SEAN 국가들의 역내경제협력 정책에 따른 역내 및 역외 국가들의 교역에 대한 영향을 연도별로 파악하기 위해 모형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설정한다. 즉 ASEAN 국가들의 수입대상 국가별 더미를 연도별로 포함시킨다. 대신 더미함정을 피하기 위해 ASEAN 각국의 국가별 더미를 포함시키되, 연도별 국가더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모형 2 참조).¹⁵⁾

한편 ASEAN 국가의 세계 각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의 변화 즉, ASEAN 역내수출 정도변화, ASEAN 국가의 국가별 수출 집중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을 다음과 같은 새로이 설정한다. ASEAN 국가의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변화는 ASEAN의 역내교역장벽 변화, ASEAN 국가의 수출다변화 노력, 그리고 ASEAN 수출대상국들의 ASEAN 국가에 대한 수입장벽 변화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를 반영

2005년 더미를 제외.

14) 수입대상국 107(108-1)개국에 대한 국가 더미 포함. Dummy Trap을 피하기 위해 한 국가에 대한 더미를 제외.

15) ASEAN 수입국별 더미를 연도별로 포함하고, ASEAN 수입대상국별 더미를 연도별로 함께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더미함정(Dummy Trap)에 직면함.

하기 위해 ASEAN 국가의 수출 대상국 더미를 연도별로 포함시킨다.¹⁶⁾ 그러나 ASEAN 국가간 있을 수 있는 수출장벽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ASEAN 수출국 더미를 포함하되 연도별 더미는 포함하지 않는다(모형 3 참조).¹⁷⁾ 즉 ASEAN 국가의 수출장벽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나 시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한다.

$$\ln(x_{tij}) = \beta_0 + \beta_1 \ln y_{ti} y_{tj} + \beta_2 \ln DIST_{ij} + \beta_3 BD_{ij} + \dots \dots \dots (\text{식 } 2)$$

$$\beta_4 LNG_{ij} + \beta_5 CN_{ij} - P_{ti}^\alpha - P_{tj}^{1-\alpha} + \epsilon_{tij}$$

<수입자료 분석 모형> i : 수입국(ASEAN), j : 수입대상국

(모형 1)

$$\ln(x_{tij}) = \beta_0 + \beta_1 \ln y_{ti} y_{tj} + \beta_2 \ln DIST_{ij} + \beta_3 BD_{ij} +$$

$$\beta_4 LNG_{ij} + \beta_5 CN_{ij} - P_{ti}^\alpha - P_{tj}^{1-\alpha} + \epsilon_{tij}$$

(모형 2)

$$\ln(x_{tij}) = \beta_0 + \beta_1 \ln y_{ti} y_{tj} + \beta_2 \ln DIST_{ij} + \beta_3 BD_{ij} +$$

$$\beta_4 LNG_{ij} + \beta_5 CN_{ij} - P_i^\alpha - P_{tj}^{1-\alpha} + \epsilon_{tij}$$

<수출자료 분석 모형> i : 수출국(ASEAN), j : 수출대상국

(모형 3)

$$\ln(x_{tij}) = \beta_0 + \beta_1 \ln y_{ti} y_{tj} + \beta_2 \ln DIST_{ij} + \beta_3 BD_{ij} +$$

$$\beta_4 LNG_{ij} + \beta_5 CN_{ij} - P_i^\alpha - P_{tj}^{1-\alpha} + \epsilon_{tij}$$

무역통계는 IMF의 Direction of Trade, GDP 통계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 거리 및 언어 더미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국제 경제

16) 더미변수 수는 $1,007[(=126(\text{수출대상국가 수}) \times 8(\text{연도 수}) - 1]$.

17) 더미변수 수는 $4[(=5(\text{분석대상 ASEAN 국가 수}) - 1]$. 수출국별, 연도별 더미 포함 시 더미함정 직면

연구소인 Centre d'Etudes Prospective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CEPII)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기간은 CEPT가 발효되기 직전인 1992년부터 1996년, AFTA가 실현되기 직전과 이후인 2001년, 2003년, 2005년이며, 분석대상 국가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ASEAN 국가의 교역상대국(수출대상국 126개, 수입대상국 108개)이 포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모형은 고정효과를 이용한 패널 중력모형이다.

2. 분석 결과

상기 회귀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 <표 3>~<표 6-3>에 나타나 있다. 지면 제약 상 모든 계수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계수의 추정치에만 논의를 국한하도록 한다. 수입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계수 추정치 부호가 이론과 모두 일치하나 일부 추정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한편 수출의 경우 대부분 계수 추정치 부호가 이론과 일치하나 양국간 GDP 곱 계수의 경우 계수가 이론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수입자료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양국 GDP 곱 계수, 접경 여부 더미, 공통언어, 식민지 경험 여부 더미 추정치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나 식민지 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못하다. 수출자료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양국간 GDP 곱에 대한 계수 추정치의 경우 이론적으로 양의 부호가 기대되나 실제 추정결과는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거리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수출 및 수입 분석 경우 모두에 있어 음의 부호로서 이론과 일치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표 3> 아시아 국가의 수출입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치(1998~2005)

	수입(모형 1)		수출(모형 3)	
	계수값	t 통계값	계수값	t 통계값
상수항	3.56	1.52	16.74	3.56**
양국간GDP곱	0.17	1.75*	-0.34	-1.69*
접경국가	0.62	3.35**	0.31	2.14**
공통언어	0.23	2.72**	0.28	4.56**
식민지관계	0.33	1.34	0.35	1.85*
거리	-0.33	-3.74**	-0.52	-7.64**

주: *(**)는 1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1) ASEAN의 국가별 수입(장벽) 변화 추이

<표 4>는 (모형 1)을 이용하여 양자간 수입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거리, 경제규모, 공통언어 여부, 식민지관계 여부, 접경 여부를 통제한 후 ASEAN의 수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4>의 각 숫자는 ASEAN 각국의 국가별/연도별 수입 더미변수에 대한 계수를 지수화한 것이다. 즉 각 숫자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ASEAN 각국의 연도별 수입이 분석기간의 ASEAN 국가 수입평균보다 몇 배 많은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1992년 인도네시아의 수입대상 국가별 평균수입은 ASEAN 여타 국가의 분석대상 전 기간 수입과 자국의 1993~1996년, 2001년, 2003년, 2005년 수입 평균의 0.12배(이하 이를 ‘상대적 수입집중도’ 또는 ‘상대적 수입정도’라 칭하기로 함) 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⁸⁾

<표 4>를 통해서 ASEAN 각국의 수입장벽 정도가 CEPT 전후 얼마나 완화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수입장벽 완

18) 더미변수의 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조건부 평균의 의미. 즉 본 중력모형에 있어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더미변수에서 1에 해당하는 수입액의 평균과 0에 해당하는 수입액의 평균의 차이이를 의미. 중력모형에서 더미변수의 경제학적 의미는 프랭켈(Frankel 1997) 등 기존의 수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음.

화속도에 있어서 ASEAN 회원국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ASEAN 각국의 수입에 대한 설명변수 통제 후 ASEAN 모든 국가의 (역내외)수입 정도는 분석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CEPT 직전해인 1992년과 CEPT 발효해인 1993년만을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있어서 수입이 여타 ASEAN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2년의 상대적 수입정도와 1996년의 상대적 수입정도를 ASEAN 국가별로 비교하면 인도네시아가 0.12에서 0.26으로 가장 크게 증가해 두 기간 사이 역내외 개방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과 2005년 기준으로 ASEAN 국가 중에서 가장 수입 개방도가 높은 국가는

<표 4> ASEAN 각국의 상대적 수입정도 추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1992	0.12	0.19	0.35	0.12	0.64
1993	0.14	0.19	0.41	0.11	0.56
1994	0.19	0.26	0.42	0.14	0.71
1995	0.26	0.31	0.56	0.17	0.75
1996	0.23	0.34	0.59	0.21	0.77
2001	0.24	0.33	0.54	0.17	0.67
2003	0.18	0.35	0.62	0.15	<u>0.90</u>
2005	0.31	0.48	0.85	0.19	- *
증가율 (1992-1996)	91.7	78.9	68.6	75.0	20.3
증가율 (2001-2005)	29.2	45.5	57.4	11.8	34.3
증가율 (1992-2005)	158.3	152.6	142.9	58.3	40.6

주: 1) 상기 숫자는 ASEAN 각국의 국가별/연도별 수입 더미변수 계수를 지수화한 것. 즉 각 숫자는 ASEAN 특정국가의 특정연도 수입이 해당국가의 여타연도 수입과 ASEAN 여타국가의 분석기간 평균수입보다 몇 배 많은가 의미. * 더미함정 회피 위해 배제.

2) 밑줄이 있는 셀들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여전히 싱가포르와 태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ASEAN의 역내수입 및 역외 수입변화 추정

한편 ASEAN의 역내관세 인하 등 본격적인 역내경제협력 개시 이후 ASEAN의 역내수입이 여타 국가들에 대한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활발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 했듯이, 이를 위해 (모형 2)에서 ASEAN 수입국가들의 대외수입장벽은 회원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허용되 연도별 차이는 무시하였다. 즉 ASEAN 수입국들의 국가더미는 포함시키되, 더미함정(Dummy Trap)을 피하기 위해 연도별로는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는 국별더미를 연도별로 포함시켰다. <표 5-1>, <표 5-2>, <표 5-3>은 그러한 가정 하에 (모형 2)을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결과로 ASEAN의 수입 상대국별 수입 집중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CEPT 발효 직적인 1992년과 2005년을 비교했을 때 ASEAN의 수입 상대국별 수입 집중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들은 중국과 ASEAN 역내국가들임을 <표 5-1>~<표 5-3>을 통해서 알 수 있다.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진 것은 중국의 글로벌 생산분업 과정에서의 역할이 강화된데 기인하고 있다. ASEAN의 수입 집중도 증가속도에 있어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타 ASEAN 역내국가들이 다른 역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ASEAN의 역내교역자유화 조치 등 다양한 역내경제협력으로 역내국가간 교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입 집중도 속도가 급격했던 것은 베트남의 ASEAN 가입을 전후로 베트남과 기존 ASEAN 국가간 활발한 분업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⁹⁾ ASEAN의 수입 집중도 증가

19) 1995년에 베트남의 ASEAN 가입이 이루어졌고, AFTA 가입이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

속도에 있어서는 非아시아 국가 중 멕시코가 두드러지게 높았는데, 이는 NAFTA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생산 분업구조에서 멕시코의 중요도가 높아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ASEAN 국가들의 역내국가에 대한 빠른 수입집중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ASEAN은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입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아직까지 ASEAN 국가들의 수입은 일본산과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 의존적이거나 더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ASEAN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구조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ASEAN 국가들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라는 점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부각되는 점은 설명변수를 통제한 후 상대적 수입집중도를 기준으로 할 때 ASEAN 국가의 수입이 한국 보다는 중국으로부터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ASEAN 수입을 설명하는 주요 설명변수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SEAN 회원국 중에서 ASEAN 역내수입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2005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이다(<표 5-2> 참조). 이는 <그림 4>에 제시된 ASEAN 역내수입 중 국가별 비중 순서와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태국이 말레이시아 보다 순서가 앞선다는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ASEAN 국가들은 역내국가 중 싱가포르 상품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고, 또한 태국상품을 말레이시아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입한다는 것이다. 즉 여타 설명변수가

되었다는 점과 동 기간에 베트남의 WTO 가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FTA 및 WTO 가입 전망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할 때 말레이시아 상품보다는 태국 상품을 더 수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타 역내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상품에 대해서 가장 덜 개방적이며, 덜 수입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는 ASEAN내 역내분업 정도가 두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품이 회원국들이 강한 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농산물 등 1차 상품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1> ASEAN의 수입 상대국별 수입 집중도 추이: 북미, 유럽, 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1992	1,089.2	37.3	3.0	279.2	89.8	105.4	40.0	75.7
1993	1,286.1	34.6	3.4	294.4	100.9	110.9	46.7	86.7
1994	1,597.0	38.9	5.0	407.2	120.6	143.6	57.4	111.2
1995	2,149.7	62.0	12.2	545.7	161.1	234.4	80.2	146.0
1996	2,443.0	68.1	17.4	594.6	172.2	214.4	76.9	167.8
2001	2,091.2	45.0	13.5	346.5	124.6	125.7	59.3	132.5
2003	2,244.4	53.2	13.6	444.3	127.1	155.0	71.6	137.8
2005	3,113.2	89.1	20.8	635.6	174.0	260.0	104.2	239.6
증가율(92-96)*	124.3	82.6	480.0	113.0	91.8	103.4	92.3	121.7
증가율(01-05)	48.9	98.0	54.1	83.4	39.6	106.8	75.7	80.8
증가율(92-05)	185.8	138.9	593.3	127.7	93.8	146.7	160.5	216.5

주: * 증가율은 1992년과 1996년 사이 상대적 수입 집중도 증가율.

<표 5-2> ASEAN의 수입 상대국별 수입 집중도 추이: 동북아, ASEAN5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1992	57.1	1,313.8	96.9	14.1	33.2	26.9	4.6	61.6
1993	64.2	1,668.0	122.8	23.3	36.9	30.7	5.9	79.6
1994	92.7	2,217.4	161.8	27.5	51.5	46.0	9.7	106.2
1995	148.5	2,922.8	235.1	42.8	94.9	80.1	15.0	128.4
1996	165.4	2,770.8	264.7	38.4	83.1	110.0	19.7	154.6
2001	277.9	1,785.6	210.1	64.7	82.1	96.6	30.4	135.3
2003	529.2	2,003.6	275.7	92.0	111.0	147.6	47.9	173.5
2005	1,116.9	2,797.6	435.9	151.2	192.3	248.8	77.0	324.0
증가율(92-96)	189.7	110.9	173.2	172.3	150.3	308.9	328.3	151.0
증가율(01-05)	301.9	56.7	107.5	133.7	134.2	157.6	153.3	139.5
증가율(92-05)	1,856.0	112.9	349.8	972.3	479.2	824.9	1,573.9	426.0

<표 5-3> ASEAN의 수입 상대국별 수입 집중도 추이: 인도차이나, 서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파키스탄
1992	<u>1.3</u>	0.1	0.0	15.9	<u>2.5</u>
1993	<u>1.7</u>	0.1	0.0	22.0	<u>1.9</u>
1994	<u>2.3</u>	0.2	0.0	25.9	<u>1.6</u>
1995	<u>3.6</u>	0.3	<u>0.1</u>	35.6	<u>2.4</u>
1996	5.0	0.2	0.0	61.8	<u>3.1</u>
2001	12.1	0.1	0.0	45.0	<u>2.0</u>
2003	17.5	0.1	0.0	60.0	<u>1.8</u>
2005	40.9	0.2	<u>0.1</u>	113.4	<u>2.3</u>
증가율(92-96)	284.6	100.0	-	288.7	24.0
증가율(01-05)	238.0	100.0	-	152.0	15.0
증가율(92-05)	3,046.2	100.0	-	613.2	-8.0

주: 밑줄이 있는 셀들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3) ASEAN의 역내수출 및 역외 수출변화 추정

다음으로 CEPT 이후 ASEAN의 역내경제협력 정책이 역내국가간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SEAN 국가의 수출상대국별 수출 집중도를 (모형 3)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표 6-1>~<표 6-3>에 따르면 수입 집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ASEAN 국가의 수출상대국별 수출 집중도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는 ASEAN 역내국가들이다. 이는 ASEAN의 역내 수출확대가 여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확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ASEAN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 집중도 증가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ASEAN의 수출집중도 수준은 수입집중도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낮으나 1992~2005년 기간에 어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 기간 인도네시아의 역내국가들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았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의 역내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화되었거나 역내분업 체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다. ASEAN의 수출상대국별 수출 집중도 증가속도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은 ASEAN 국가들의 인도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매우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으로 이는 동 기간 인도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입에서와 마찬가지로, ASEAN 국가들의 높은 역내수출 확대 속도에도 불구하고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ASEAN의 주요 수출은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주요 설명변수를 통제했을 때, ASEAN 회원국 중에서

ASEAN 역내수출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2005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이다(<표 6-2> 참조). 이는 <그림 6>에 제시된 ASEAN 역내수출 중 국가별 비중 순서와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소한 차이로 태국이 말레이시아 보다 순서가 앞선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역내국가 중 싱가포르가 ASEAN 역내생산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역내 상품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 수출입 집중도 증가 속도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빠른 역내교역 확대 속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아직까지 역내생산 상품에 대해서 가장 덜 개방적일뿐 아니라 역내분업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ASEAN 국가들의 역내 수출 및 수입 집중도 증가속도에 있어서 CEPT 발효를 전후로 한 1992~1996년 기간 증가속도가 아시아외환위기 이후인 2001~2005년 기간 증가속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역내관세인하 속도가 CEPT 출범 전반부에 훨씬 빨랐던 점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²⁰⁾

ASEAN 일부 국가(태국, 필리핀)를 제외하고는 주요 관심대상 국가들 대부분에 있어서 ASEAN의 수출집중도 증가속도가 수입집중도 증가속도 보다 매우 높았다. 이는 ASEAN의 경제협력강화 정책 이후 ASEAN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증가 속도가 수입증가 속도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2~2006년 기간에 ASEAN의 한국에 대

20) 2001~2005년 기간 IT버블붕괴와 중국의 WTO 가입이 ASEAN 역내 및 역외 교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것이 특별히 역내와 역외교역에 있어서 비대칭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에 대한 국가 더미변수와 연도별 더미 변수를 통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정치 왜곡을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상대적 수출 집중도 증가 속도는 여타 역외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이는 ASEAN 국가들이 역내교역자유화 등 경제통합정책 등을 통해 확보한 수출경쟁력을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ASEAN의 한국에 대한 수입집중도 증가속도 역시 다른 역외국가들에 비해 높았다. 이는 한국과 ASEAN간 교역이 여타 역외국가들에 비해 보다 활발했다는 것으로 한국 기업들이 ASEAN 경제통합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ASEAN의 한국에 대한 수입집중도 증가 보다 수출집중도 증가가 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점이라 하겠다.

또한 ASEAN의 수입대상국별 수입 및 수출 집중도 추이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멕시코와 호주에 대한 ASEAN의 수출 및 수입 집중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효과에 따른 멕시코의 대외무역 확대의 결과로 보이며, 호주의 경우 ASEAN-CER 등 ASEAN와 오세아니아간 무역활성화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1> ASEAN 국가의 수출상대국별 수출 집중도: 북미, 유럽, 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1992	956.1	21.7	5.7	126.3	60.2	45.8	56.4	21.4
1993	1,168.6	25.5	8.5	142.6	69.1	50.5	55.5	22.2
1994	1,500.9	30.0	11.7	171.3	84.5	56.4	74.5	29.9
1995	1,850.3	33.9	7.9	211.7	114.2	73.6	109.9	37.8
1996	2,024.1	32.9	9.0	226.5	126.1	80.5	129.6	46.5
2001	2,345.6	36.4	36.7	201.4	126.4	72.1	172.7	60.0
2003	2,571.4	45.5	34.9	251.0	146.8	100.2	205.2	100.6
2005	3,514.3	59.1	48.3	344.7	173.5	131.7	308.3	175.2
증가율(92-96)*	111.7	51.6	57.9	79.3	109.5	75.8	129.8	117.3
증가율(01-05)	49.8	62.4	31.6	71.2	37.3	82.7	78.5	192.0
증가율(92-05)	267.6	172.4	747.4	172.9	188.2	187.6	446.6	718.7

주: * 증가율은 1992년과 1996년 사이 증가율.

<표 6-2> ASEAN의 수출 상대국별 수출 집중도 추이: 동북아, ASEAN5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1992	18.0	426.2	23.5	3.6	7.6	11.6	2.8	22.6
1993	26.7	506.1	29.7	3.7	10.3	16.0	4.0	31.4
1994	35.8	621.5	39.2	6.6	16.8	19.1	5.4	48.9
1995	53.9	862.5	57.7	12.0	22.6	41.4	8.4	65.1
1996	71.5	959.0	70.8	11.4	32.6	47.5	11.9	75.3
2001	125.4	924.5	85.5	15.1	38.5	44.2	14.7	75.6
2003	288.0	1,059.0	118.2	31.0	63.5	59.3	19.3	89.4
2005	588.0	1,484.6	192.3	58.2	96.0	96.1	30.2	134.5
증가율(92-96)	297.2	125.0	201.3	216.7	328.9	309.5	325.0	233.2
증가율(01-05)	368.9	60.6	124.9	285.4	149.4	117.4	105.4	77.9
증가율(92-05)	3,166.7	248.3	718.3	1,516.7	1,163.2	728.4	978.6	495.1

<표 6-3> ASEAN의 수출 상대국별 수출 집중도 추이: 인도차이나, 서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파키스탄
1992	<u>0.7</u>	0.1	0.0	2.7	<u>0.7</u>
1993	<u>1.3</u>	0.2	0.0	5.1	<u>0.9</u>
1994	3.3	0.1	0.0	5.9	<u>1.5</u>
1995	4.0	0.2	0.0	9.8	<u>2.0</u>
1996	4.1	<u>0.4</u>	0.0	18.1	<u>2.3</u>
2001	5.1	<u>0.3</u>	0.0	22.1	<u>2.0</u>
2003	9.4	<u>0.5</u>	0.0	35.8	3.6
2005	19.2	<u>0.7</u>	0.1	67.4	7.5
증가율(92-96)	485.7	300.0	-	570.4	228.6
증가율(01-05)	276.5	133.3	-	205.0	275.0
증가율(92-05)	2,642.9	600.0	-	2,396.3	971.4

주: 밑줄이 있는 셀들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패널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CEPT 발효 전후 ASEAN의 역내교역이 국가별로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역내교역 확대에 있어서 국가별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역외국가들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CEPT 발효 직전과 이후에 있어서의 교역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협력정책의 역내교역 확대효과를 역외국가들과의 교역정도와 비교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CEPT가 발효된 이후 모든 ASEAN 회원국들의 수입은 증가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수입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무역장벽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화되었다는 반증일 수 있으나, 무역장벽 완화 이외의 여타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함의도출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ASEAN 국가들의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상대적 수입정도는 대부분 여타 역외국으로부터의 상대적 수입정도보다 빠르게 확대되어 CEPT 발효가 역내수입을 확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부터의 ASEAN 수입정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두드러진 특징은 ASEAN의 수입은 중국, 멕시코, 그리고 베트남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과 멕시코의 NAFTA 체결 효과가 양국의 국제분업에서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베트남의 ASEAN 가입 및 WTO 가입에 따른 ASEAN 국가와의 분업관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ASEAN 국가들의 빠른 역내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SEAN의 수입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 주요 기존 교역 상대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분석에서 수입에 영향

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얻어진 것으로, 이는 무역구조에 있어서 ASEAN과 교역대상국간 차이, 교역대상국별 무역장벽에 있어서의 차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SEAN의 수출상대국별 수출증가 속도를 보면 대부분 역외 국가들 보다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수출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증가 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역외국가 중에서는 인도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인도에 대한 수출증가는 인도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연도별로 역내 수출증가 속도를 비교해보면, CEPT 발효부터 아시아외환위기 직전 까지 기간의 역내수출 증가 속도가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2001~2005년 기간의 역내수출 증가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점이다. 이는 ASEAN 경제통합정책에 따른 역내교역 활성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주요 관심대상 국가들 대부분에 있어서 ASEAN의 수출집중도 증가가 수입집중도 증가에 비해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1992~2006년 ASEAN의 한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 집중도는 여타 역외국가들에 비해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ASEAN 역내경제통합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에 대한 수입집중도 증가 속도보다 수출집중도 증가 속도가 높은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인 ASEAN의 경제협력강화정책 내지 지역경제블록 강화가 한국의 교역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바, 향후에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SEAN 경제블록형성이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면 ASEAN 지역경제블록이 한국의 대 ASEAN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ASEAN 국가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를 ASEAN 뿐만 아니라, NAFTA, EU 등 여타 지역경제 블록에 대한 분석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의 경제통합정책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역내교역심화 정도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CEPT와 같은 역내교역활성화 정책, CEPT 등 여타 경제협력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역내투자와 그에 따른 역내교역 증가, ASEAN의 경제통합에 대비한 다국적 기업들의 역내생산분할 체제 구축에 따른 역내교역 증가 등 ASEAN의 경제통합정책이 전반적인 역내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국가별로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역내교역활성화 조치 그 자체가 역내교역에 미치는 효과로만 분석을 제한하지 않고, 역내교역 및 투자활성화 등 그동안 ASEAN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역내교역이 역내국가별로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다양한 역내무역활성화 조치와 역내투자활성화 조치를 정량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 효과가 복합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 있어, 각각이 역내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ASEAN의 경우 FDI가 교역패턴과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FDI 증가가 역내무역과 역외무역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FDI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ASEAN에 있어서 FDI와 역내교역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ASEAN의 경제통합정책의 결과로서 역내무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역내투자가 역내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향후 추진해 볼 만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산업, 기계산업, 섬유산업 등 산업별로 나누어 ASEAN의 경제통합이 이들 산업의 역내교역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CEPT, AFTA, 역내무역, 중력모형

〈참고문헌〉

- 권율. 2005.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 정인교 · 박인원. 2003. 『ASEAN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용걸. 2008. "ASEAN 주요국의 수출, 직접투자유입 및 경제성장간 상호관계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 Adams, F. Gerard and Innwon Park. 1995. "Measuring the Impact of AFTA: An Application of Linked CGE System." *The Journal of Policy Modeling* 17(4): 325-365.
- Anderson, James E. and Eric Van Wincoop.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 _____. 2004. "Trade Costs." *Working Paper* 10480, NBER. May.
- ASEAN Secretariat. 2007. *ASEAN Investment Report 2006*. April.
- Clarete, Ramon, Christopher Edmonds and Jessica Seddon Wallack. 2002. "Asian Regionalism and its Effects on Trade in the 1980s and 1990s." *ERD Working Paper Series* 30, Asian Development Bank.
- DeRosa, Dean A. 1995.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ASEAN Example." *Research Report* 103, International

-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Elliot, Robert and Kengo Ikemoto. 2003. "AFTA and the Asian Crisis: Help or Hindrance to ASEAN Intra-Regional Trade?" *The School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Series* 0311.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 Frankel, Jerry A. 1997.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Gaulier, Guillaume, Thierry Mayor, and Soledad Zignago. 2004. "Notes on CEPII's Distances Measures." Center d'Etudes Prospective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CEPII), March 2004.
-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e, Direction of Trade CD.
- Lee, Jong-Wha and Innwon Park. 2003. "Free Trade Area in East Asia: Discriminatory or Nondiscriminatory?" Mimeo.
- Lewis, Jeffery. D., Sherman Robinson, and Zhi Wang. 1995. "Beyond the Uruguay Round: The Implications of an Asian Free Trade Area." World Bank. Mimeo.
- Sharma, Subhash C. and Soo Y. Chua. 2000. "ASEAN: Economic Integration and Intra-regional Trade." *Applied Economic Letters* 7.
- Thornton, John and Alessandro Goglio. 2002. "Regional Bias and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Applied Economic Letters* 9: 205-208.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2000, 2001*.

(2009. 7. 2 투고; 2009. 7. 22 심사; 2009. 7. 30 게재확정)

<부표 1> ASEAN 각국의 총 수출 중 역내수출 비중(역내수출/총수출) 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도네시아	0.11	0.10	0.10	0.11	0.11	0.10	0.11	0.13	0.13	0.14	0.13	0.14	0.16	0.18	0.16	0.17	0.16	0.16	0.17	0.17	0.17
말레이시아	0.26	0.22	0.24	0.24	0.25	0.29	0.29	0.29	0.27	0.27	0.26	0.27	0.27	0.23	0.23	0.26	0.24	0.25	0.24	0.24	0.25
필리핀	0.11	0.07	0.09	0.07	0.07	0.07	0.07	0.05	0.07	0.07	0.13	0.13	0.13	0.13	0.14	0.15	0.15	0.15	0.18	0.15	0.17
싱가폴	0.20	0.19	0.20	0.20	0.21	0.21	0.22	0.20	0.22	0.27	0.27	0.25	0.24	0.21	0.23	0.25	0.24	0.24	0.22 (0.33)	0.22 (0.32)	0.21 (0.32)
태국	0.14	0.14	0.14	0.12	0.11	0.11	0.12	0.13	0.16	0.18	0.18	0.18	0.19	0.15	0.16	0.16	0.16	0.16	0.17	0.18	0.18
ASEAN	0.18	0.16	0.17	0.17	0.17	0.18	0.19	0.19	0.20	0.22	0.22	0.22	0.22	0.19	0.20	0.21	0.21	0.21	0.20 (0.24)	0.20 (0.24)	0.21 (0.24)

주: ()은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을 포함한 경우

<부표 2> ASEAN 각국의 총 수입 중 역내수입 비중 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도네시아	0.09	0.10	0.13	0.10	0.10	0.08	0.10	0.10	0.09	0.09	0.14	0.11	0.13	0.15	0.17	0.18	0.17	0.21	0.22	0.23	0.27
말레이시아	0.22	0.21	0.21	0.19	0.19	0.19	0.20	0.20	0.20	0.19	0.17	0.20	0.20	0.22	0.23	0.23	0.22	0.22	0.24	0.23	0.24
필리핀	0.14	0.10	0.09	0.09	0.10	0.09	0.09	0.09	0.11	0.11	0.10	0.10	0.13	0.14	0.14	0.15	0.15	0.15	0.16	0.18	0.17
싱가폴	0.17	0.17	0.17	0.18	0.16	0.17	0.19	0.19	0.21	0.22	0.22	0.22	0.22	0.23	0.23	0.24	0.24	0.25	0.23 (0.30)	0.22 (0.28)	0.21 (0.26)
태국	0.15	0.12	0.14	0.11	0.11	0.12	0.12	0.12	0.12	0.13	0.11	0.12	0.12	0.14	0.15	0.15	0.14	0.14	0.14	0.14	0.16
ASEAN	0.16	0.15	0.16	0.15	0.14	0.14	0.16	0.16	0.17	0.17	0.17	0.17	0.18	0.19	0.20	0.21	0.20	0.21	0.21 (0.23)	0.20 (0.23)	0.21 (0.23)

주: ()은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입을 포함한 경우

<부표 3> ASEAN 총 역내수출 중 각국의 비중(각국의 역내수출/ASEAN 총 역내수출) 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도네시아	0.16	0.14	0.12	0.12	0.12	0.10	0.11	0.13	0.12	0.10	0.09	0.10	0.11	0.14	0.11	0.12	0.12	0.12	0.12	0.12	0.12
말레이시아	0.32	0.29	0.31	0.29	0.30	0.34	0.33	0.35	0.32	0.28	0.28	0.29	0.28	0.28	0.28	0.29	0.28	0.29	0.28	0.29	0.29
필리핀	0.04	0.03	0.04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03	0.04	0.04	0.06	0.07	0.07	0.07	0.07	0.07	0.06	0.06
싱가포르	0.39	0.42	0.42	0.46	0.45	0.44	0.44	0.38	0.40	0.46	0.45	0.43	0.41	0.38	0.40	0.40	0.39	0.38	0.37	0.37	0.37
태국	0.08	0.12	0.11	0.11	0.11	0.10	0.11	0.12	0.15	0.15	0.15	0.14	0.15	0.13	0.13	0.13	0.14	0.14	0.16	0.17	0.16

주: ()은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을 포함한 경우

<부표 4> ASEAN 총 역내수입 중 각국의 비중 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도네시아	0.09	0.12	0.13	0.09	0.09	0.08	0.09	0.08	0.07	0.06	0.10	0.08	0.08	0.08	0.07	0.09	0.08	0.09	0.10	0.12	0.14
말레이시아	0.27	0.25	0.21	0.20	0.24	0.24	0.26	0.27	0.24	0.24	0.23	0.25	0.25	0.26	0.27	0.27	0.26	0.26	0.27	0.26	0.25
필리핀	0.07	0.05	0.05	0.05	0.06	0.05	0.04	0.04	0.05	0.06	0.05	0.05	0.08	0.08	0.08	0.07	0.08	0.08	0.08	0.09	0.07
싱가포르	0.43	0.46	0.46	0.51	0.45	0.45	0.45	0.44	0.49	0.49	0.47	0.47	0.46	0.46	0.45	0.45	0.44	0.43	0.41	0.39	0.36
태국	0.13	0.12	0.14	0.15	0.16	0.17	0.16	0.16	0.14	0.15	0.15	0.15	0.12	0.12	0.13	0.13	0.13	0.14	0.15	0.15	0.17

주: ()은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입을 포함한 경우

출처: Direction of Trade DB, IMF.

<Abstract>

Effects of ASEAN Members' Economic Cooperation on Intra-regional Trade

Wanjoong Kim
(Dong-A University)

I analyze the effects of ASEAN members' economic cooperation on ASEAN members' trade volume using panel gravity model. Previous studies focus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reaty(CEPT) or ASEAN Free Trade Area(AFTA)'s effect on ASEAN's total trade volume, not each member's trade.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each member's trade, I include county and year dummy variables for each trade partners in the gravity model.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dummy variables, I could estimate the effect across each member over time.

According to this study, each ASEAN member's intra-regional trade was more rapidly expanded compared to trade with non-members. Especially, Indonesia and Thailand's imports from other ASEAN countries increased so rapidly. It means that the two countries more reduced trade barriers to ASEAN member countries than other members. Also,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exports to ASEAN countries are more expanded than other members. In addition to that, it was found that impacts of CEPT in 1993 on ASEAN's intra-trade is larger than realization of AFTA in 2003.

Key Words: AFTA, CEPT, Intra-regional trade, Gravity model